

# 프린팅업체들, 새 수익 창출원으로 '페이퍼리스 오피스'의 핵심 솔루션 개발에 '박차'

한국후지제록스 · 신도리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전략적 제휴

○○○ 취재 | 박지연 기자 |

“종이 없는 사무실이 탄생할 것이다.”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1999년에 펴낸 저서 <생각의 속도>에서 종이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고 사내 전산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종이의 쓰임새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과연 빌 게이츠의 예언대로 종이 없는 사무실이 탄생할 것인가?

최근 산업자원부 ·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제도와 관련하여 종이를 페이퍼리스화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문서이미징 분야가 복사기 관련 프린팅 업체들에게 새로운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인증 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해서 스캔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복사기 업체들은 공전소 사업자와 손을 잡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한국후지제록스가 인지소프트와 제휴해 1차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는 KTNET와 함께 공전소 사업에 본격 나선데 이어, 지난 11월 22일 신도리코는 공전소 2차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와 손을 잡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전소 시장을 놓고 신도리코-LG CNS, 한국후지제록스-KTNET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게 됐다.

국내 기업이 법적 보존 연한이 있는 종이 문서를 한 해 약

95억장 출력하고 관리비용으로 25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공전소는 이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도리코는 LG CNS와 공전소 사업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복합기 기반의 '분산형 신뢰스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영업과 마케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가 신도리코 디지털복합기에서 스캔만 하면 종이문서가 전자서명, 타임 스탬프(Time Stamp), 색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로 전환되고 동시에 LG CNS의 공전소로 자동 등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막고 신뢰성을 높여 종이문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신도리코측은 분산형 방식의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집중형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분산형 신뢰 스캔 솔루션뿐만 아니라 IC카드 인증부터 공전소 서



▶ 신도리코는 지난 11월 22일 공전소 2차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버와의 송수신, 이용자 및 보관 날짜 기록, 전자서명을 통한 문서출력 등 보안 솔루션 전반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도리코 김용선 영업본부장은 “신도리코는 오피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문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스템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다”며 “LG CNS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우수한 인프라 및 서비스 수행 경험에 신도리코의 우수한 복합기 기반 신뢰스캐닝 솔루션이 결합해 다양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해 7월 디지털복합기의 LCD판넬

에서 원하는 문서형식을 선택하고 스캔만 하면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전자문서가 생성, KTNET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자동 저장되는 ‘맞춤형 문서 전자화 솔루션’을 출시한 바 있다.

한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관계자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은 일찍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해왔다”며, “이미 국내 모 기업과 솔루션 도입에 대한 조율작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신뢰스캔

종이문서의 전자화과정에서 이미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무결성·가독성·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스캔방식(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5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뢰스캔을 거친 전자화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원본 종이문서 폐기 가능함.

●●레이저 단신●●

보잉의 레이저장착 Avenger 테스트 성공

보잉사는 지난해 가을 레이저시스템을 장착한 Avenger가 폭발물 IED 및 전쟁지역 내 산개된 미군을 위협하는 미폭발물(UXO)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지난해 9월 26, 27일 양일간 Huntsville의 Redstone Arsenal에서 Avenger는 1kW 고체레이저로 다섯 개의 타깃 및 설치된 2대의 무인비행체를 파괴했다.

테스트에서는 Avenger에 장착된 저공 항공기용 Stinger 미사일 발사대를 레이저로 교체했다. 1980년에 디자인된 원래 시스템은 저렴하고, 가벼우며, Stinger 미사일 및 자동화기를 사용하여 지상 이동중 헬리콥터, 크루즈미사일, 항공 타깃 및 무인항공기 등을 커버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2기의 미사일 발사대중 하나를 레이저로 교체할 수 있으며, Avenger나 Humvee, 기타 군사차량에 장착 또는 독자적인 형태로도 가능하다.

시스템에 사용된 레이저는 IPG Photonics의 기성품인 Ytterbium Fiber Laser이다. 1080nm의 파장으로 적외선을 내보내며 사정거리는 100 m에서 1km까지 달한다. 현재 IED 나 UXO 제거를 위해 로봇이나 기계팔 등을 사용하기도 하

나 종종 작전수행중 파괴되기도 한다. 타깃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원격 조정 가능한 레이저를 사용한 작전의 경우, 과거 짧은 반경 내 작전 수행에 따른 파손이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Redstone Arsenal에선 레이저차량의 정지 중에 테스트를 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이동중에 사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Stinger 미사일 발사대 하나를 레이저로 대체하면, 지대지 타깃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타깃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공대공 능력을 갖추는 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다.

Avenger는 이미 군에서 보유중인 몇 가지 기성품을 사용해 개발되었다. 1999년 이후 군이 Avenger의 양산을 승인하자, 수천 대 이상의 Avenger가 미육군 해병대, 국토방위대 및 해외에 보급되었다.

보잉사에 따르면 “이러한 광범위한 사전기술 및 차량의 보급에 따라 레이저 Avenger는 이미 실전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Laser Focus World(2007년 12월호)